

〈2018년 7월 공무국외여행 귀국 보고서〉

출장제목	자매·우호지역 네트워크 강화 및 민간골 활성화를 위한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출장			
여행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국의 4대 축제 중 하나인 시애틀 시페어 후원회 밤 행사 참여를 통해 한복 기부행사 실시 및 전북 국제교류 네트워크 확대, 2023 세계 잼버리 홍보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라북도 자매지역인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을 방문함 			
여행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국 			
여행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18년 7월 18일(목) ~ 7월 24일(화) 			
보고서 작성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민석 			
출장자	소 속	직 위	성 명	비 고
	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	사무차장	이은주	
	교류협력팀	주임	이민석	

자매·우호지역 네트워크 강화 및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출장 결과보고

미국의 4대 축제 중 하나인 시애틀 시페어 후원회 밤 행사 참여를 통해 한복 기부행사 실시 및 전북 국제교류 네트워크 확대, 2023 세계 잼버리 홍보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라북도 자매지역인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에 방문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

I 개 요

- 기 간 : 2018년 7월 18일(목) ~ 7월 24일(화) / 5박 6일
- 출 장 지 :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시 일원
- 출 장 자 : 이은주 사무차장, 교류협력팀 이민석 주임 총 2인
- 주요내용
 - 시애틀 시페어 추진관련 한인회 후원의 밤 행사 참여 및 한복기증
 - 워싱턴주 한인사회 다문화협회, 통합한국학교 등에 아동 한복 기증
 - 워싱턴주립대학교 한국학센터 방문 및 업무협의 개최
 - 2019 전라북도-워싱턴주 청소년교류캠프 추진관련 관계자 업무협의 등

II 주요내용

□ 한복 기증 캠페인 사전실시

- 미국 워싱턴주 한인회에 기증할 한복 모집을 위해 보도자료, 도내 유관 기관 협조공문, 센터활동 참가자 홍보, SNS 홍보 등을 실시
- 도청, 기초단체, 도내 14개 출연기관, 아름다운가게, 일반인(전국) 등에서 성인 및 아동 한복 140여벌 이상을 기증받음

□ 시애틀 시페어 참여 주요준비

- 최초 출장일정은 시애틀 시페어 행사날로 7월 28일(토)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출장일정을 1주일 앞당김
 - 현지 행사 장소에 홍보부스 설치 및 홍보 협조에 어려움 발생
 - 8월 7일 도민 네트워크단 러시아 민간교류 행사의 일정축박 등
- 위와 같은 센터 상황으로 인해 시애틀 시페어 후원회 밤에 참여하여 한복 기증행사 및 한복 패션쇼를 추진하기로 결정함

- 도내 한복업체 중 해외 한복 패션쇼 경험이 많은 업체를 수소문 및 선정하고 사전에 행사 기획에 관련된 업무협의를 진행함
- 기증받은 한복에 대한 정리활동을 통해 기증에 적합한 한복 수량 파악 후(75벌) 미국 워싱턴주 파견관(000 팀장)과 행사 추진계획 수립

□ 시애틀 후원의 밤 참여

- 기증 한복에 대한 다림질 및 개별포장 실시(성인 40벌, 아동 35벌)
- 후원의 밤 작업 현장답사 실시를 통해 한복 패션쇼 및 한복 기증식, 현지 홍보활동 계획을 정비함
- 후원의 밤에 한인 및 현지인 100여명 참여, 전라북도 홍보, 한복 기증, 한복 패션쇼 등을 성황리에 수행종료

□ 워싱턴주 한인사회 아동 한복기증

- 워싱턴주 시애틀 한인회 사무실에서 시애틀·페더럴웨이 한국통합학교 및 다문화협회 관계자들에게 아동안복 35벌 기증
- 다문화협회 측은 이미 전라북도와 다문화자녀 교류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9월 전북 방문 시 센터와의 업무협의 계획을 수립
- 전라북도 도정,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, 2023 세계 잼버리 홍보 등

□ 워싱턴 주립대학교 한국학센터 방문

- 금년 세계 한국학 비엔날레 참석 일정 공유 및 전북 방문 관련 워싱턴 주립대학교 한국학센터 Clark W. Sorensen 교수 방문 및 업무협의 실시
- 금년 세계 한국학 비엔날레 관련 전북방문 일정 중 11월 6일에 진행할 예정인 전북도청 학이시습의 날 특강 협조요청 및 제안 수락
- 워싱턴주립대 한국학센터 학생과 도내 국제학 전공 학생간의 대학생 교류 활동 추진방안 논의 및 사업발굴 필요의 공감대 형성
- 양 국가간 지역학 현황 등에 관련된 논의, 한국학 도서관 방문 및 시찰 등

□ 2019년 전북-워싱턴주 청소년교류캠프 업무협의

- 기존에 청소년교류캠프를 실시한 타코마시 교육청 사정으로 인해 페더럴 웨이시 고등학교가 2019년도 청소년교류캠프를 운영할 예정에 따른 관계자 업무협의 개최

- 페더럴웨이시 교육청 회계담당자, 국제교류담당자, 청소년프로그램 담당자 및 해당 고등학교 한국어 강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2017~2018년도 청소년교류캠프의 정례화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 진행
- 페더럴웨이시는 타코마시에 비해 총영사관 지원 예산이 적은 관계로 후원금 모집의 비중이 높고 예산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센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받음
- 전라북도교육청 선진교육행정 출장 관련된 지역 교육청의 협조를 요청

III 금 후 계 획

- 2019년 전북-워싱턴 청소년교류캠프 준비 : 수시
- 워싱턴주립대 Clark W. Sorenson 교수 면담 : 11월중

IV 평 가

□ 잘된점

- 워싱턴주의 경우 20년전 민간에서 한복을 기증받은 이후로 전북이 최초로 한복을 기증한 지방정부로서 현지에서의 전북 홍보효과 극대화
- 형식적인 자매우호지역에 비해 실제로 상호 협력사업 발굴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, 향후 전북과의 교류사업을 정례화할 수 있는 발판을 조성함
- 다양한 한인단체, 다문화단체, 교육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확대 및 구축 할 수 있었으며 향후 신규사업 발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

□ 보완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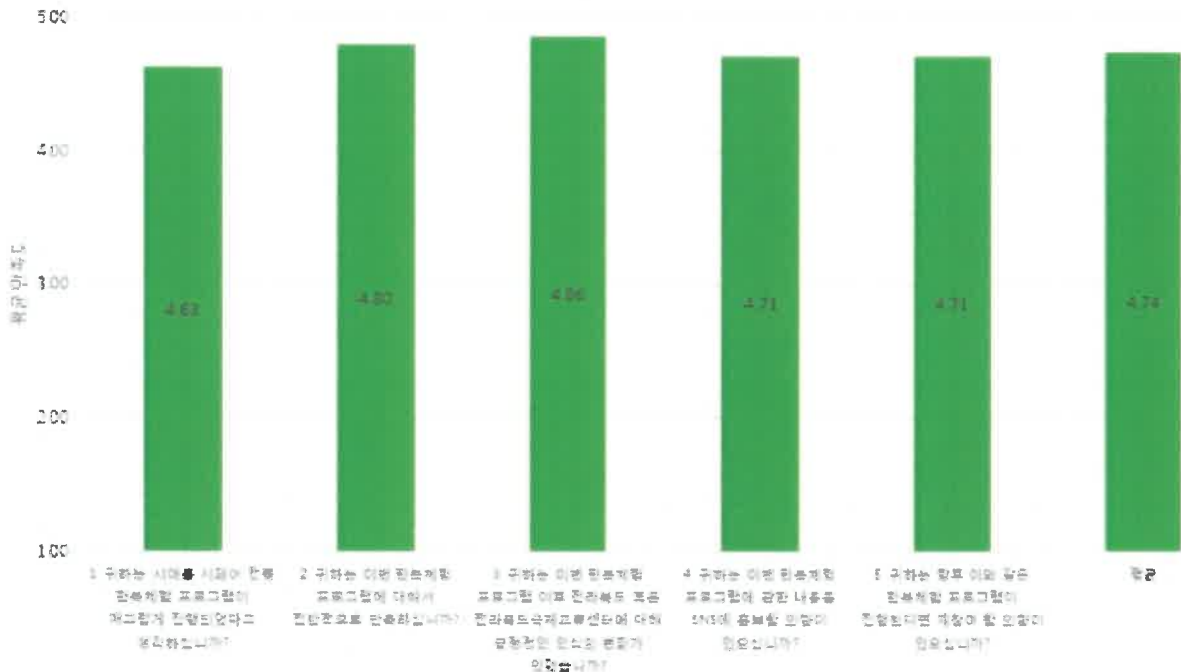
- 청소년교류캠프의 경우 다른 시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 교류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할 것으로 보임
- 현지 담당자와의 협조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여 사전에 일정 및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한복 및 기타 기증 물품 등을 현지에 보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과정이 필요함
- 본 사업의 정례화를 위해 매년 기증해야 하는 물품에 대한 수량 확보 방안이 필요함

V

만족도조사 결과

○ 설문조사 참가자 수 : 35명(참가자 총원 100여명, 외국인 30여명)

설문 문항별 만족도 결과



※만족도 범위 1에서 5사이

총 평균: 4.74 /총 만족도: 94.8%

○ 설문조사 서술형 답변(총3건)

- 미국에 이민온지 15년이 지났지만 이런 한복 패션쇼는 처음 경험했습니다. 한복 기증에 선뜻 응해주신 전라북도에 감사드립니다.
- 티비 K-Drama에서만 접할 수 있던 궁중의상이나 트렌디한 21세기 한복을 볼 수 있었던 것에 감명 깊었습니다.
- 한인 1.5세대로서 이런 한복들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.

VI

현지보도자료

□ 미국 내 보도자료

○ 미주 한국일보 “최고 한복쇼 구경오세요”

- <http://www.koreatimes.com/article/20180720/1192124>

○ 미주 시애틀뉴스 “전라북도, 워싱턴주 한인단체에 어린이 한복 기증”

- <http://www.joyseattle.com/news/34870>

○ 시애틀 한인 뉴스넷 “시애틀 한인회 시페어 퍼레이드에 힘을 보태자”

- http://www.seattlen.com/bbs/board.php?bo_table=News&wr_id=21460

□ 한국 내 보도자료

○ 여의도티비 뉴스 외 다수 “美 한인에게 전달할 한복 기증 받아요”

- <http://www.ytv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4351>
- <http://www.newsinjb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537>
- <http://www.igj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21047>

○ 전라일보 외 다수 “전북도 국제교류센터, 시애틀 한인사회에 한복기증”

- <http://www.jeollailbo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546596>
- <http://www.jjn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750129>

○ 투데이안외 다수 “워싱턴주에 ‘매력 전북’ 알리러 왔어요”

- <http://www.todayan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97558>
- <http://kormadangnews.com/kormadangnews/34913>

VII

참고 사진





끝.